

해남 전라우수영 옛 성 복원된다

명량대첩 전적지...郡, 2012년까지 180억 투입 성곽·문지 복원, 탐방로 등 주변환경 정비 나서

해남군이 충무공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명량대첩 전적지인 전라우수영의 성지를 복원한다. 해남군은 오는 2012년까지 180억원(국비 90억원·군비 90억원)을 투입해 문내면 선두리 일대 전라우수영 성지 6곳의 정비·복원사업을 벌인다. 군은 우선 올해 8천만원을 들여 우수영성 복원

정비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한편 1억원을 들여 주변 토지 734㎡를 매입할 계획이다. 군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성곽 및 문지(북문지 1동, 성벽 50m)와 성지복원(동, 서, 남문지 등 3동, 성벽복원 180m)을 비롯해 탐방로 등 주변 환경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때 해상 침략을 막기 위해 남해안에 설치된 4개 수영 중 한 곳으로, 현재까지 주변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옛 모습을 상당부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소홀과 관리부실 등으로 매년 유적지 훼손이 가속화돼 복원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군 관계자는 “전라우수영은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 명량대첩에 앞서 12척의 범선을 수습했던 역사적인 장소”라면서 “이번 복원사업이 마무리되면 역사교육의 장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함평군-유니세프 '어린이 세상' 협약

함평군이 유엔 산하기구인 유니세프(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한국위원회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동참하기로 했다. 이석형 함평군수와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유니세프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유니세프는 함평군의 각종 행사에 유니세프 친선대사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를 지원하고 함평군은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등 각종 행사시 유니세프 홍보 공간을 조성해 모금한 기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하게 된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오는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리는 2008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에 유니세프 홍보 공간을 조성해 모금한 기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나주배 명성 유지 위해서는 품종 다양화·성장제 사용 억제해야”

■나주배 희망만들기 워크숍

나주배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품종을 다양화하고 성장 촉진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주배 혁신포럼이 최근 나주 KT 연수원에서 개최한 '나주배 희망만들기 워크숍'에서 나주시 배원예과 이종권 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나주배 생산 품종의 81.5%가 중·만생종인 신고배로 출하시기가 편중돼 있고 성장 촉진제와 착색방지 과다 사용으로 당도와 저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배 재배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배 나무 성숙비율이 2000년 51%에서 지난해 88%로 늘어나면서 생산량은 증가해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또 대다수 농민들이 조기 출하를 위해 성장 촉진제인 지베렐린을 사용해 오래 저장하면 배가 푸석푸석하고 물러지는 이른바 '스펀지' 현상을 초래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나주배 품종을 다양화하고 계통 출하배 성장 촉진제 사용하지 않는 배를 우선 반입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팀장은 “혁신리더 육성 등 배 농가조직을 단일화하고 노령목 교체와 폐원 지원, 불량과수원 정비 등 생산 기반시설 현대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탑 프루트’ 생산단지 육성과 가공산업과 유통구조 혁신, 전략적인 수출로 나주배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청정 갯벌로 유명한 강진만에서 막바지 참고막 채취가 한창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1월부터 제 맛이 들기 시작한 참고막은 3월 말까지가 제철로 최근 물빠짐이 많은 사리철을 맞아 생산량도 늘고 있다. 궁중 진상품이었던 강진만 참고막은 찰진하고 깊은 맛이 일품으로 강진 8미(味)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자투리땅에 쌈지꽃밭 가꿔요”

나주 공산면 주민들 나무심기 정충환 면장은 “올해 상반기에 19개소 6천600㎡에 주민 직접 참여로 꽃밭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옥과농협 주부모임 '올해의 농가 주부상' 수상

옥과농협 겸면 농가주부모임(회장 김광덕)이 지난 12일 농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농가주부 모임상'을 수상했다. <사진> 3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옥과농협 겸면 농가주부모임은 지역 여성의 문화증진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해 왔다. 또 매년 농촌생활 개선과 결식아동 및 불우이웃돕기행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곡성=장필수기자 bungy@

전남도, 도로 '노선별 직원 담당제' 도입

전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가 도로 노선별 직원 담당제를 실시한다. 전남도는 국도 7개(334km) 노선과 44개 지방도(1천960km) 등 51개 노선 2천294km에 달하는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 순찰인력은 3명에 불과해 올해부터 '노선별 직원 담당제'가 도입된다. 직원 담당제는 2명씩 19개 조로 조당 2~3개의 노선을 지정, 지속적인 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전남도는 잘 부러지지 않고 수리가 쉬운 시신 유도봉을 개발해 실용신안특허를 내고 이를 지방도상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새로 개발한 시신 유도봉은 하단 부분에 스프링을 설치해 잘 부러지지 않고 훼손시에도 뒷 부분만 교체하면 되는 제품으로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재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함평 학다리고 지방 명문사학 부활

학교경영 전문 교장 초빙·동문회 명성찾기 노력 결실 올 대입에서 서울대 2명 등 140명 전원 4년제 합격

함평 학다리고(교장 서광수·사진)가 2008년도 대학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등 지방명문 사학으로 부활하고 있다. 함평고는 이번 입시에서 서울대 2명 등 수도권 대학에 7명이 합격했다. 또 KAIST와 광주교대 1명, 전남대 21명 등 졸업생 150명 가운데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 10명을 제외한 14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학다리고의 이러한 성과는 광주시 부교육감을 지낸 학교경영 전문 교장 초빙과 학교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총동문회(회장 양한모)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등



다각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모교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 동문들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나서 학력증진비로 매년 1억2천만원씩 5년간 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학다리고는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도 140명 정원에 250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했으며 합격자의 절반 가량이 중학교 내신상위 10% 이내 학생들이 차지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Advertisement for '스카이뷰미' (Sky View M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building and text: "국제외식산업(주)", "스카이뷰미", "OPEN", "예약상담 10621262-2278".

Advertisement for '호림의약중심' (Horim's Medical Center)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text: "호림의약중심", "정신의학연구소", "107-529-0830, 529-0830".